

조선산업



노란봉투법, 조선업은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을 반증

산업분석

2025. 08. 20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모든 언론이 조선업의 피해를 강조

정부 여당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 입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1일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조선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내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다. 조선업은 가장 많은 생산인력을 필요로 하며 공정의 자동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노동쟁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는 조선산업은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의 조선업

조선업의 역사적인 패권은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왔다가 지난 30여년간 한국이 갖게 되었고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에서 선박 설계의 중요성과 선박 건조과정에서의 여러 기술공학적 접근 등을 고려할 때 조선업 역시 기술력이 요구되는 산업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란봉투법의 시행 가능성은 조선업은 결국 대량의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자동화 공정의 한계가 분명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주는 것이며 과거 영국에서 시작된 조선업 패권은 노동 임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선진국에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갔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다.

한국의 기술인력 이탈과 중국의 생산성 향상

80년대 일본의 조선합리화 정책의 수혜로 일본 기술인력을 대폭 수용했던 한국 조선업의 역사와 유사하게 지금은 한국의 숙련된 기술인력들이 대거 중국 조선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결과 중국 조선소들은 MSC 같은 메이저 선주에게 대량 수주를 받아내는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조선업의 기술적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 조선업 간의 기술력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 조선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높아 보인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